

'모두가 실력 키우는 교육'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수업혁신 정책 발표... 학생 배움 중심 수업 확대

AI·에듀테크 활용 미래형 교실 구축, 교사 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체계 개편 등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을 통해 '모두가 실력을 키우는 교육'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단순한 성적 경쟁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배움 중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은 공교육의 핵심인 수업 혁신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천 예비후보는 학생 배움 중심 수업 확대를 제시했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탐구형 수업을 활성화해 일부 학생만 따라가는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수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통해 상위권 중심의 성과가 아닌 모든 학생의 성취와 성장 역



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실 구축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AI와 에듀테크를 단순한 기술 활용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메타인지와 질문·사유 능력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하고, 협력·토론·체험형 수업 활성화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천 예비후보는 "수업 혁신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교사들이 연구와 실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운영과 연구시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교원연수원 등 기존 연수

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전문가 연수, 실천형 연수, 찾아가는 연수 등을 강화하고 AI·에듀테크 활용 역량과 인문학적 사고를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연수 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학습공동체 중심의 수업 혁신 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분석실 설치 지원하고, 우수 교원 해외연수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학교 안팎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은 깊게, 평가는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실력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 협력과 소통 역량, 미래를 설계하는 힘까지 포함하는 삶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IB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지원 조례' 공포·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진형석·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북교육청 소속 학교의 IB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인재 양성과 학교 수업·평가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해 온 IB 교육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로써 전북교육청은 부산·서울·전남·강원·제주 등에 이어 IB 교육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공교육의 수업·평가 혁신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원칙 △교육감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 △운영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IB 교육 추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4년부터 IB 기반 수업·평가 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

으며, 현재 IB 월드스쿨 3개교와 후보 학교 2개교(2026년 3월 1일 기준)를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학교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IB 기반 전북형 수업·평가 모델 구축과 IB DP 과정의 대입 연계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형 미래교육과정은 "이번 조례 제정은 IB 교육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전북교육의 수업·평가 혁신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운영학교들이 학교 여건에 맞게 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가 일반학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직업계고 학생 성공 취업 지원·지역산업체 연계 강화

전북교육청, 기술교육대서

취업지원관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지원과 지역 산업체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2026년 취업지원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업지원관은 직업계고 학생과 지역 산업체를 연결하는 핵심 인력으로, 학생들의 취업 상담과 취업처 발굴, 현장실습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취업지원관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수순에너지고등학교 등 도내 14개 직업계고에서 근무하는 취업지원관 17명이 참여했다.

3일간 진행되는 연수에서는 2026년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 인내를 비롯해



전북교육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2026년 취업지원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취업처 발굴 전략, 직업상담 기초·심화 과정, 취업계획 수립 실무,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안내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지역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과 취업처 발굴 전략 등 기업 협력역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도와 면접 코칭 등 취업지도 역량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동기부여,

정서 지원 등 학생 상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업지도 및 업무 생산성 향상 과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면접 질문 예측 등 AI 기반 취업지원 역량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원광대, 12~14일 2026 학생축제 개최

원광대학교 재학생들의 축제 한마당인 '2026 WONSTIVAL : 대동일봉'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캠퍼스 일원에서 펼쳐진다.

원광대학교 총학생회는 대운동장을 비롯한 교내 일원에서 학생축제 '2026 WONSTIVAL : 대동일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개교 80주년과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통합 원년을

기념해 '대동일봉'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는 통합 원광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화합과 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안과 피크닉존 '대동일봉', 포토부스 '대동네

컷', 포토존 '일봉일봉', 퍼스널 컬러 진단, 키링·체인팔찌 만들기 대동가요제 등이 운영된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첫째 날에는 불꽃간사춘기와 선미, 크러시가 무대에 오르며 둘째 날에는 YENA와 민경훈, THE9가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에는 로맨틱펀치와 멜로망스, N.Flying, 산다라박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역산=이재훈 기자

"도박 NO!"... 이번주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주간

전북교육청, 17일까지 교육·캠페인·카드뉴스 홍보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들이 도박성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도박예방교육 주간을 단순한 일회성 강의가 아닌 학생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 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편성·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교육자료를 활용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별 도박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펼쳐 학생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학교 누리집 등을 활용한 도박예방 카드뉴스 홍보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과 연계한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전북교육청은 도박 문제 예방과 조기 개입, 치유 지원 정보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하는 예방교육이 청소년 도박 중독은 물론 학교폭력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경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도박예방교육 주간이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